

작가노트

유근택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아파트 1층에는 제법 긴 窓이 있다.

이곳은, 때로는 빛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고, 바람이 불거나 우수로 가득찬 공간이 자리하곤 한다. 창문을 가로질러 좁은 길이 하나 걸려있고 나뭇가지사이로 언뜻언뜻 누군가가 항상 어디 론가를 달리거나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마치 시간의 움직임처럼, 혹은 불안한 절대적인 운명처럼 이렇듯 다가오기도 하고 불현듯 사라지곤 하는 것이다.

窓에 대한 작업을 반복하면서 나는 문득 그 길 위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내가 만나는 대상들이 전혀 새로운, 혹은 놀가움과 경이로 내 앞에 이야기 하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내리고 싶은 것이다.

나는 높은 정신세계를 동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장 낮은 곳, 혹은 깊은 심연으로부터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는 감동들을 드러내길 좋아한다.

언제 부터인가 동양미술이 자칫 형식적인 높은 어떤 것만을 강조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잃어가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나는 신중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